

엘리아의 아들이 된 엘리사

좀 지난 최근 중학교 3학년인 필자 딸내미 민주는 필자에게 성경의 인물이름이 모두가 엉터리라는 불평 섞인 변(辯)을 늘어놓았습니다. 곧 자신이 보고 온 오페라제목이 '삼손과 데릴라'인데 성경에서는 느닷없이 '들릴라'(Delilah)라고 하고, '데이빗'을 왜 '다윗'(David)이라고 하며, '조수아'를 왜 '여호수아'(Joshua)라고 하며, '에이브리햄 링컨'(Abraham Lincoln)과 철자가 같은데 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틀리게 기록하고 있느냐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민주의 불평은 한동안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조셉'과 '요셉'(Joseph), '지저스'(Jesus)와 '예수', '제이콥'(Jacob)과 '야곱' 등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집트(Egypt)와 애굽은 불만의 백미(白眉)가 되었습니다. 민주의 불평불만에 필자는 이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간에 민주의 신앙교육을 무주공산(無主空山)에 방치해 두었다는 모진 열패감 때문이었습니다.

필자의 어린 시절 '가정성서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출판사는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 총 10권으로 구성된 책이었습니다. 필자가 이를

접했을 당시 지금의 삼국지처럼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진진했는지 여태 그 추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우스갯소리로 구약성경을 ‘이스라엘 무협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에 빗댄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필자의 아버님께서도 이 책을 그저 책꽂이에 꽂아만 두셨습니다. 간혹 이를 보시며 때로는 심각하게 때로는 미소를 머금으시면서 그렇게 필자의 흥미를 유도하신 것 말고는 읽어보라는 권유도 읽어보아야 한다는 강요도 덧붙이지지를 않으셨습니다. 호기심에 읽어 본 그 책은 필자에게 말 그대로 이스라엘 무협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손에 땀을 쥐기도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고, 혀를 차기도 하고, 카타르시스를 만끽하기도 하고, 때로는 평평 울기도 하면서 그렇게 유년시절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필자의 무심한 방관 속에 내던져진 민주가 스스로 이 같은 불평불만을 필자에게 쏟아냈음에 이로 인한 필자의 자괴감은 그 어디에 비할 바가 없었습니다. 이 통한의 죄를 어떻게 추슬러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필자는 지난 날을 기억하고 필자 또한 아버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내로라하는 책방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게 된 것은 모두가 이 때문이었습니다. 책방에 가는 내내 필자의 머릿속에서 맴맴 돌았던 책명은 오직 ‘가정성서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책방에 이르러 필자는 큰 충격에 사로잡히고야 말았습니다. 어디에도 ‘가정성서이야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 하면 ‘가정성서이야기’와 같은 부류의 책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한 권으로 된 만화책이나 그도 하룻밤에 읽는 성경이야기 등이 고작이었습니다. 손에 땀을 쥐고 보았던 기드온(Gideon)과 300용사, 기손강(Kishon Riv.)가

에서 바알선지자를 처단하는 엘리야(Elijah)의 무용담, 거짓선지자 발람(Balaam), 앓수르 산헤립(Sennacherib)의 군대 18만 5천의 괴멸, 기생 라합(Rahab)의 기지(機智), 다윗과 요나단(Jonathan)의 우정 및 골리앗(Goliath)과의 싸움, 길보아산(Gilboa Mt.)에서 사울(Saul)과 요나단의 죽음, 잔인하기 그지없었던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II),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 등의 이야기를 우리 후세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하고도 멋들어지게 꾸민 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반하여 신앙적 자기계발서는 무궁무진하였습니다. 한 대형교회의 목사님의 수상록, 간증서, 신앙지침서, 성지답사후일담, 고백록, 참회록 등을 비롯하여 난해하기 이를 데 없는 신학전공서적은 물론 기독교 비판서적 등은 이곳저곳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도 신학과 관련한 전공서적이라고 해도 몇 권되지 않았고, 어떤 것은 명화(名畵)로 보는 신구약성경이라는 제목 하에 그것도 비닐커버에 쌓여 머리말 보는 것도 불가능 했습니다.

책방 여직원에게 물어보니 그의 변이 찾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필자가 찾는 전집(全集)은 지금까지 자신이 책방에 근무한 이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나마 단행본마저도 이제는 출판사는 물론이고 찾는 사람 또한 없음을 명확히 해 두었습니다.

이후로 필자는 발걸음을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목사님에게나 전도사님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분들이 필자에게 건네 준 것이라고는 오늘의 말씀, QT 교재, 전도지 내지는 그간의 설교를 묶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주일공과교재가 전부였습니다. 그 외중에 교육관에서는 워십댄스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비비고 머리를 쫓아보아도 필자

눈앞에 ‘가정성서이야기’는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어찌된 영문 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다가 이지경이 되었을까요? 이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그 이유를 찬찬히 되짚어 보기로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호 04:06)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03:17-19)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벧후 03:18)

모름지기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그다지 친숙한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속에 잠겨있는 지난 세월이 열추 반만년에 이르고 있고, 그것도 혈통(血統)과 계통(系統)이 낯선 먼 나라 이스라엘의 기원과 역사만이 갈피마다 그득하다는 시각에서입니다.

필자 또한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으로, 언제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구약성경을 다잡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힘에 부치고 다루기가 버거웠던 기억도 돌이켜보면

모두가 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코 밑에 괴인 저마다의 손끝 감각이 아닐 수 없기에, 최후의 세대로서 가장 니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호흡은 분주한 현 시대의 아귀다툼에 휘말려 언제나 가쁘고 거칠기 그지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호흡에 어찌 태곳적 시대를 아우르고 있는 구약성경의 장구한 숨결을 짜깁기하기가 녹록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여간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그리 친숙한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을 하루의 췌바퀴에 담아 사는 우리의 웅색한 형편과 처지를 생각할 때, 제아무리 넉넉한 여유를 변통하여 이를 구약성경 이해(理解)의 대가로 되판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애초 우리의 생각과도 같이 그렇게 수지맞는 일은 아닐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은 본래가 길고도 고른 숨으로 샅을 치르지 않으면 중국에는 덤은커녕 본밀천도 값는 선천적인 습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간 우리의 손끝으로 짚어 본 구약성경의 맥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곧 그것이 따뜻하고 온화하며 어깨를 들썩일 수 있는 양(陽)의 기운이었다기보다도, 오히려 무섭고 잔인하며 때로는 피와 복수에 버무려진 음(陰)의 기운이 강했다는 이유에서, 언제나 구약성경은 이 같은 우리의 진맥(診脈) 때문이라도 결코 회생할 수 없는 딱한 처지가 되어, 늘 마음 한 귀퉁이 후미져 그늘진 곳에서 그렇게 숨죽인 채 너부러져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각과 경험칙이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서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늘날 명색이 내로라하는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구약성경의 무용론(無用論)을 주창하고 있는 사람도 꽤나 있을 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여기에 한술 더 떠 그 폐지론(廢止論) 또한 역설(力說)하고 있는 사람도 술합니다.

이 같은 시류에, 혹자는 구약성경을 인생의 말년 즈음, 넉넉한 여유를 갖고 한땀 한땀 읽는 것이 보다 현명한 처사라며, 간혹 편찬의 골무를 끼고 이곳저곳 싸다니며 주위 사람 옆구리를 쿡쿡 찌르기도 합니다. 그 때문인지 우리는 주변에서 코끝에 걸친 돈보기 안경너머로 구약성경의 책갈피를 넘기는 신앙의 선대들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형편은 교회에서도 그 처지가 다르지 않음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죄악과 심판 그리고 멸망, 그 결과로서 지옥을 강론하는 것은 가물에 콩 나듯 드문드문하고, 축복과 감사 그리고 영생, 그 결과로서 천국을 설교하는 것이 이제는 별다른 기색 없는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의 역사적 사실성(史實性) 또한 앞의 무용론이나 폐지론의 흐름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고 있음을 봅니다. 곧 이적(異蹟)과 소위 기적(奇蹟)에 관한 기사는 둘째치더라도, 구약성경의 역사적 실재(實在)가 보편적인 인류의 역사와 다름없이 일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공공연한 의문은 제아무리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하더라도 언제고 한번쯤은 가슴 한 켠에 품어 보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다름없는 사실이라면, 이 시대에 구약성경은 이미 설자리를 잃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은 앞서 본대로 우리에게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책이라기보다, 지금 이후로는 버리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마치 계륵(雞肋)과 같은 책이라고 보아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결부된 이상의 모든 부정적 견해와 극단의 주장 그리고

존재의 무가치 등에 관한 시각과 경험칙을 종합할 때, 한 쪽으로 치우친 필자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그 밑바탕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아마도 다를 것이라는 뜻 모를 인식이 한 중심에 터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름지기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로서, 오늘날 구약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눈 밖에 그것도 멀찌감치 후미진 외딴 곳에 격리되어 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의 세대를 지쳐가는 중에, 이제는 구약의 하나님은 필요 없고, 신약의 예수님만 필요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에게 지옥은 관심 밖의 대상이고, 오로지 천국에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심판과 멸망은 관심 밖이고, 오로지 축복과 감사 그리고 영광에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암울하기 짝이 없는 구약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평안하기 이를 데 없는 신약성경에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가까이 보기에,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기 마련인 것이 자연의 이치라 할 때, 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하늘과 아버지와 여름은 필요하지만, 땅과 어머니와 겨울은 그다지 필요치 않다는 말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떤 사람의 논리는 마치 두 발 달린 책상처럼 그저 반쪽짜리에 불과한 논리로 접어두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멀리 보기에,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 영광이 있으면 심판이 있고, 축복이 있으면 멸망이 있기 마련인 것이 말씀의 이치라 할 때, 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천국과 영광과 축복은 인정하면서도, 지옥과 심판과 멸망은 그다지 인정할 수 없다는 말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떤 사람의 믿음은 마치 윗돌 없는 맷돌처럼 그저 반쪽짜리에 불과한 믿음으로 접어들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의 올곧은 믿음이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보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할 때, 이 어떤 사람의 믿음은 그의 해괴한 입맛에 따라 취사되어진 뜻 모를 공염불로 보아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 어떤 사람의 뜻 모를 공염불을 경계하기 위하여, 어거스틴(Augustine, Sanctus Aurelius Augustinus, 354-430)이 남긴 추상같은 명언이, 곧 “신약은 구약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나타난다”(Novum Testamentum in Vetere latet, Vetus Testamentum in Novo patet)는 말일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그 어떤 사람의 입맛이나 기호에 따라, 손가는 대로 그러저럭 취하거나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이를테면 그 흔하디흔한 자기계발서나 소양지침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대의 역사를 풍미하고 있는 일편의 역사서도, 언감생심 뜻 모를 전래민담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모름지기 구약성경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I AM WHO I AM)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고 또 약속하고 계신 언약의 기록임과 동시에 생명의 책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창조하신 사람을 향하여, 그 극진하신 사랑을 낱알이 표현해 두고 있는 그야말로 보면 볼수록 가슴 벅찬 책인 것입니다.

무릇 구약성경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고 영원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이르시고 또한 약속하고 계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책인 까닭에 구약성경은 누가 뭐라 해도 그야말로 우리 가슴을 항시 뛰게 하는 소중한 책인 것입니다. 이 책에는 우리 사람에게

항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축복의 말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 중심에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축복’이 면면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곧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서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저마다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온전히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을 바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그곳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끝내는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영생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추상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라면 이 생명의 책을 올곧게 접하는 것이 그다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바빠 달려가고 있는 이 곤고한 세상과 그곳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생각할 때, 더욱더 그러할 것이라 봅니다. 이는 복잡다단한 현대의 실상이 잠잠한 가운데 구약성경을 바로 접하여야 할 우리에게 크나 큰 장애가 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나마 친절하게 그리고 낱낱하고도 상세하게 구약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그다지 흔치 않음은 어떠한 이유에서일까요?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쉽게 그리고 아늑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뜻 모를 중압감에 딱딱하게 짓눌려져 있는 마치 오래된 족보처럼 퀴퀴하게 묵혀진 것이라면, 이 딱한 처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설명하여야 할까요? 이 보다 더욱 중한 사실로서, 이 땅에 쉽게 내보여지지도 않고 있고 또한 쉽게 보이지도 않고 있는, 이를테면 쉽고도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약성경의 가이드북이 어딘가 모르게 꼭꼭 숨어있거나 숨겨져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 딱한 처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설명하여야 할까요?

구약성경은 그들만이 구별할 수 있는 책이 되어서도, 저들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성경은 그들만이 알고 저들만이 이해하여 품속에 꼭꼭 담아두고 이를 시시때때로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소위 비밀장부와의 같은 책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혹시나 그간에 우리가 구약성경에 덧붙여진 가이드북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까닭에, 그러기에 딱딱하게 짓눌려진 또 다른 모습 때문에, 친숙하지 않게, 때로는 필요가 없다고 치부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그저 그렇게 구약성경을 필요악 내지는 무용지물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정녕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찾는 사람이 없었던 이유에서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고 보아야 할까요? 타산이 맞지 않아 이러한 종류의 책 발간을 도외시하고 있었던 출판사의 책임일까요? 이도 저도 아니면 신구약성경 보다 주일설교로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는 나태한 선데이 크리스천의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도 저도 아니면 필자처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우리의 책임일까요?

필자가 생각하기엔 그 모든 이유가 교회와 교회지도자 특히나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기에 돈이 되는 일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이해(利害)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자기계발서, 수상록, 간증서, 신앙지침서, 성지답사후일담, 고백록, 참회록 등은 무엇 때문에 이 보다 앞세워 두었는가요? 자라나는 우리의 후세들의 신앙교육보다 이따위의 것들이 더 소중하였기 때문인가요? 돈과 욕심이 아니었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바로보기에, 교육관이 들썩대야 교회의 부흥이 뒤따를 것입니다. 우리 후세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이 땅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빈자리는 교육관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지, 구약의 사울이 신약의 사울인지, 하와의 또 다른 딸이 이브인지, 엘리야의 아들이 엘리사인지, 모세의 아들이 여호수아인지, 남이스라엘과 북유다인지, 가나안이 도대체 지금의 어디에 붙어 있는 국가인지, 골고다는 어디이고 갈보리는 또 어디인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함과 셈과 야벳인지, 사도바울의 동생이 사울인지, 더 이상 얼마나 헛갈려해야 하고 고민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초미의 관심사는 워십댄스의 율동예, 젊은이를 위한 예배랍시고 흥겨운 프로그램 구성에 온통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니 그런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후세들이 자기계발서, 수상록, 간증서, 신앙지침서, 성지답사후일담, 고백록, 참회록 등을 접하면서 언감생심 그것도 손에 땀을 쥐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혀를 차고, 카타르시스를 만끽하기도 하고, 때로는 펄펄 울기도 하면서 그렇게 유년시절을 보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앞선 선대의 고백이 이 땅의 여기저기서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사 58:12)